장성아카데미 달라진다

공무원·지역민 의식 교육 → 테마별 주제 강연으로

▲5월 국정비전 공유
▲6월 교육과학
▲7월 농업정책
▲8월 문화관광
▲9월 지역발전
▲10월 사회복지
▲11월 지식정보

월 단위로 테마 정해 3~4회 집중 교육

공무원과 지역민들의 의식개혁 교육기관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의 운영방식이 테마별 주제강연으로 바뀐다.

장성군은 이달부터 장성아카데미 운영을 월 단위로 테마별 주제를 정해 3~4회 집중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지난 1995년 9월 첫 교육을 시작한 장성아카데미는 그동안 방청객들을 특정 분야 공무원과 주민들로 특화한 적은 있으나 테마별 집중교육은 개설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장성군은 5월 테마를 '국정비전 공유'로 정하고, 8일 이형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의 '글로벌시대의 성공전략'이란 주제의 강연을 마련하는 등 마인드 혁신과 새 정부 정책방향을 위주로 강의표를 짰다.

또 6월에는 교육과학 ▲7월 농업정책 ▲8월 문화관광 ▲9월 지역발전 ▲10월 사회복지 ▲11월 지식정보 등을 월별 테마로 정해 각 테마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강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성군은 특히 테마별 집중교육의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각 테마별 정책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강사를 초빙하는 한편 테마별 주제와 관련된 단체를 방청객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분야별 집중교육을 통해 장성아카데미 강의가 군정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강생 입장에서는 관심 분야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얻는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아카데미는 개설이후 지금까지 56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566회의 강연을 마쳤으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연인원 26만여명에 달한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담양 대나무 축제 관방천변 '소망등'

'제 10회 담양 대나무 축제'를 기념하는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소망등이 관방천변에 설치됐다. 지난 3일 개막된 대나무 축제는 당초 9일 폐막될 예정이었으나 석가탄신일 연휴 등을 감안해 12일까지 연장, 진행된다. /송기동기자 song@

혁신도시 묘지 이장 순조

나주시, 현재 1,500기 옮겨 … 9월까지 완료될 듯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에 들어설 혁신도시 건설의 걸림돌이었던 묘지 이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나주시 혁신도시지원단에 따르면 혁신도시내 묘지 4천600여기 가운데 32%인 1천500기의 이장이 완료돼 32%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나머지 2천900여기에 대한 이장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본격적인 공사착공에 들어가는 9월 이전까지 이장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토지공사과 도시개발공사 등 3개 시행사에서 분묘 개장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달 말 현재 개장 신고필증 교부 실적도 73%에 달하고 있다.

분묘 연고자는 이장 작업을 마친 후 묘지 이장비를 청구하면 된다.

나주시는 무연고 묘지와 종중 묘지를 뺀 나머지 분묘에 대해서는 금천과 산포 공설묘 잔여지를 정비해 이전 부지로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협의에 나선 토지보상율은 95%에 이르고 있으며, 이달 중 이사비와 주거 이전비, 영업보상 등 실질적인 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꽃게 대풍' 진도바다 어민 한숨소리

가격 폭락·유가 폭등 … 출어비도 못건져

꽃게 풍어에도 가격 하락과 연료대 등 조업 원가 상승으로 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진도지역 어선 30여척은 조도면 외병도와 내병도, 대마도 부근에서 하루 평균 6t 정도의 꽃게를 잡고 있어 사상 유례가 없는 '꽃게 대풍'을 맞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간 진도 서망사업소에 위판된 꽃게는 48t(10억4천만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19t)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꽃게 가격은 kg당 2만1천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5만5천 원)에 비해 절반이하로 폭락했다.

더욱이 인천 등 서해안에서도 꽃게가 많이 잡히고 있는데다 소비마저 부진해 출어비조차 건지기가 힘들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 유가 급등으로 200ℓ 경유 한 드럼 가격이 지난 해 9만5천 원에서 16만 원으로 오른데다가 각종 어구 값도 폭등해 어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진도선적 9t 홍성호 선장 겸 선주인 김영운(52)씨는 "꽃게가 작년의 2배 가량 잡히고 있으나 가격이 폭락해 풍어에도 불구하고 적자 조업을 하고 있다"며 울상을 지었다.

이에따라 전남서남해안 어민들은 어선에 공급되는 기름에 대한 세금 인하 등 연안어업 육성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해남군 역대 군수 6명 한자리에

명예홍보대사 위촉

역대 해남군수가 한자리에 모였다〈사진〉. 해남군은 7일 군청 상황실에서 21대 박관주, 29대 유민봉, 30대 정원강, 31대 이정균, 32대 백종철, 35대 문병일 전 군수 등 관외 거주 역대 군수 6명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군은 이날 전직 군수들에게 미래 군정방향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문병일 전 군수는 "현안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실천에 옮긴다면 해남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충무공의 애국혼이 깃든 울돌목을 활용해 해남이 역사문화관광체험지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간담회 후 우슬체육공원과 땅끝, 고산유적지, 공룡화석지, 화원조선산업단지 등 해남의 주요 관광지와 산업시설도 견학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16세기 유물 미투리·명정 등 수습

광주 시립민속박물관, 영광 금계리 회곽묘 발굴

16세기 조선 중기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 영광에서 출토됐다.

광주 시립민속박물관은 지난 6일 상산 김씨 문중의 의뢰에 따라 영광면 불갑면 금계리 회곽묘를 발굴, 미투리·명정(銘旌) 등 10여점의 유물을 수습했다.

무덤의 주인공은 조선 중중때 종 5품 무관벼슬을 지낸 김세유(1506~1582)로 확인됐다.

회곽묘 해체 당시 관 내부가 물에 잠겨있어 복식 등은 거의 훼손돼 수습이 불가능했으나 미투리, 명정 등 유물 10여점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주인택 광주 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은 "상태 복원이 가능한 10여건의 유물을 통해 당시의 매장 기법과 사회상, 복식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독거노인 가구 10곳에 단축기능 전화기 설치

광산구 송정2 주민센터

광주 광산구 송정2동 주민센터가 8일 위급한 상황에서 쉽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단축기능 전화기를 관내 독거노인 가구 10곳에 설치했다.

'SOS 안심클릭'으로 이름붙여진 이 전화기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119 구급대나 동 주민센터, 통장, 자녀 등 10곳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연결된다.

주민센터는 추가로 30곳에 이 전화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고객 200명 무료 한방진료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지부장 나승운)가 지난 7일 농업인과 고객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했다. 〈사진〉

이날 무료진료는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진료단이 참여해 진맥과 상담, 침술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실시했다.

나승운 지부장은 "'더욱 가까워진 농협, 고객과 농업인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농협'이 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